

2023-06-05 (2023-20호)

06월 05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수급 살피며 단기 박스권 조정 가능성 저울질

서울, 6월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수급 여건을 살피며 단기 박스권 하향 조정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95-1,325원이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견히고, 연준 긴축 우려도 잠시 잦아든 가운데 미국 경기침체 역시 현실화되지 않는 여건에서 원화는 최근 상대적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다.

때때로 나타나는 강달러에도 둔감한 반응이고, 위안화와의 동조화 정도도 크게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원화는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수준과 외인 주식 자금과 궤를 같이 하면서 틈틈이 강세 시도
에 나서고 있다.

이에 달러/원은 전주 말 단기 박스권 하단 근처인 1,300원대 초반으로 내려섰고, 이번 주 역시 환율은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며 저점 탐색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인 탓에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가 강세를 보인
부담은 있지만, 미국의 6월 금리 동결 전망이 유효한 상황에서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가격 반등과 AI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의 호재를 앞서 반영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반도체
주식을 매집하고 이와 관련한 수급이 원화 강세를 견인한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외인 주식 매매 동향이
환시의 주된 변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중 중국 5월 수출입과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돼있어, 이에 따른 중국 증시와 위안화 반응 따라
원화는 일시적으로 보폭을 키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은 수급 변화를 읽기에 보다 주력하면서 원화는 수급 연동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 후반에는 4월 경상수지(잠정)가 발표된다. 한은은 4월 외인 배당 송금 확대에도 경상수지가 균형 수
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6월5일(월)

- ⊙ 한국은행: 2023년 5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서비스산업발전TF (14:00)
- ⊙ 기획재정부: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15:00)
- ⊙ 통계청: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16:30)
- ⊙ 금융위원회: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배포시)

6월6일(화)

- ⊙ 현충일
- ⊙ 기획재정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 (파리·런던, 6일~11일)

6월7일(수)

-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08:5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09:00)
- ⊙ 기획재정부: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 ⊙ 기획재정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 (파리·런던, 6일~11일)

6월8일(목)

-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09: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관혼토론회 (10: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비통방, 10:00)
- ⊙ 금융위원회: 국내 지표금리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한 지표금리·단기금융 시장 협의회 개최 (11:00)
- ⊙ 금융감독원: 2023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 정규파생상품시장 15분 조기 개장 추진 (12:00)
-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6월)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 ⊙ 점검 회의 개최 (16:30)
- ⊙ 기획재정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 (파리·런던, 6일~11일)

6월9일(금)

- ⊙ 한국은행: 2023년 4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
- ⊙ 세계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제언 제시 (10:00)
- ⊙ 한국은행: 2023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 (파리·런던, 6일~11일)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6월05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6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5월		56.4
6월5일	17:30	유로존	센틱스지수	6월	-15.5	-13.1
6월5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YY	4월		5.9%
6월5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5월		55.1
6월5일	23:00	미국	고용추이	5월		116.18
6월5일	23:00	미국	비방위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4월		-0.6%
6월5일	23:00	미국	공장주문 MM	4월	0.5%	0.9%
6월5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5월	52.1	51.9
6월6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4월		-1.9%
6월6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4월	0.2%	-1.2%
6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5월		1,265.4B
6월7일		중국	수출 YY	5월		8.5%
6월7일		중국	수입 YY	5월		-7.9
6월7일		중국	무역수지 USD	5월		90.21B
6월7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4월		0.0
6월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4월		-0.5
6월7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6월2일 주간		197.4
6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5월		3.205T
6월8일	04:00	미국	소비자신	4월	20.00B	26.51B
6월8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5월		3.2%
6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4월		2,278.1B
6월8일	08:50	일본	GDP 수정치 QQ 연율	1분기		1.6%
6월8일	18:00	유로존	GDP 수정치 YY	1분기	1.2%	1.3%
6월8일	21:30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29일 주간		232k
6월8일	23: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4월		-0.2%
6월8일	23:00	미국	도매판매 MM	4월		-2.1%
6월9일	10:30	중국	PPI YY	5월		-3.6%
6월9일	10:30	중국	CPI YY	5월		0.1%
6월9-16일		중국	사회용자총량	5월		1,200.00B
6월9-16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YY	5월		12.4%
6월9-16일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	5월		718.8B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5일(월)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 출석 (오후 10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경제교육위원회 주최 행사에서 연설 (6일 오전 2시30분)
- ⊙ 휴장국가: 뉴질랜드

6월6일(화)

-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후 1시30분)

6월7일(수)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후 11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美 대형주 주도 주식시장 랠리

미국 증시 S&P500지수가 몇몇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점점 우려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5개 종목이 현재 S&P500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AI에 대한 열기가 이같은 추세를 강화했다. 도이치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S&P500 지수는 균등가중(equal-weighted) S&P500지수와 1999년 이후 최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소수 종목이 이끄는 최근의 주식시장 상승세는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으며, 만약 투자자들이 그러한 대형주들을 매도하게 되면 전체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이 생길 위험이 있다.

⊙ 신흥국 중앙은행들 통화정책 완화

지난 2021년 초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압력이 거세지자 서둘러 통화 긴축을 시작했고, 이제 그들은 또 선진국 중앙은행들보다 먼저 완화에 나서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달 유럽 은행들 중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앞서 우루과이는 중남미 금리 인하 주기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인도와 러시아는 이번 주 정책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어떤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 OPEC+ 회의 여파 주목

투자자들은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의 4일 회의 결과에 따른 유가 추이도 주목하고 있다.

OPEC+는 지난 4월 회의에서는 하루 116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결정해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다.

현재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작년 3월의 절반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 日 환시개입 경계감

엔화는 5월 초 이후 달러 대비 5% 이상 절하돼 6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환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장의 개입 경계감을 높이기도 했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트레이더들은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에 계속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RBA 정책회의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가계가 고통을 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발표된 호주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망을 큰 폭 상회하며 주요 주가지수를 2개월 만

의 최저치로 끌어내렸다.

호주 중앙은행은 오는 6일 정책회의를 열 예정이며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30%로 반영하고 있다. 호주 정책금리는 지난달 깜짝 인상 후 이미 11년 만의 최고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달러/원 월간 전망 ①)-상·하단 단단한 박스권 전망 우세... 달러 행보 다시 주목

서울, 6월1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내 무역수지 개선 여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 6월 달러/원 환율은 상·하단이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97.5-1,349.1원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종가(1,327.2원)와 비교했을 때 저점은 29.7원 낮고, 고점은 21.9원 높아 달러/원 환율은 비슷한 범위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은행권 위기가 완화되고 물가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후퇴했던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어 달러/원 상방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6월 회의를 기점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6월 회의 결과가 달러/원 향방에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반도체 재고와 중국 경기 회복세 부진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 약세가 틈틈이 원화 약세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팀장	1305	135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300	1340
하나은행	고유연 팀장	1290	1350
DGB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280	1360
IBK기업은행	임기묵 차장	1310	1340
KDB산업은행	류홍 대리	1300	1350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300	135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310	1345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300	1356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280	1350
평균		1297.5	1349.1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②)-상·하단 단단한 박스권 전망 우세... 달러 행보 다시 주목

서울, 6월1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내 무역수지 개선 여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 6월 달러/원 환율은 상·하단이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97.5-1,349.1원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김장욱 팀장 (신한은행)

"외인 주식 관련 수급 영향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수급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중국 상황과 반도체 재고 등을 감안하면 당장 수출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등 펀더멘털이 우호적이지 않다. 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는 등 강달러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고, 이에 환율은 상단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예상 거래범위 1,305-1,350원

▲ 박범석 과장 (우리은행)

"6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은 남아있으나, FOMC를 소화한 이후에는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무역수지 적자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으로 달러/원은 하락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 다만,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위안화 가파른 약세가 달러/원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갈등 해소 등의 이슈가 나온다면 환율 하락 속도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40원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레벨이 높아진 레인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이 같은 레인지가 깨질지가 관건이다. 부채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위험회피는 완화됐지만, 6월 금리인상 기대감과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강화는 달러/원 하단을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조화가 많이 깨졌다고는 하나 중국 쪽 금리 이슈와 지표 부진에 따른 확연한 달러/위안 상승세로 달러/원은 쉽게 빠지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연고점 부담감에 지난달 확인했듯이 그간 나오지 않았던 수출업체 네고가 전방위로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이고, 반기말 특성상 월말로 갈수록 원화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6월도 일간 변동성은 유지되지만 중기 변동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290-1,350원

▲ 이용주 차장(DGB대구은행)

"달러/원 거래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데 6월에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질 것 같다. 미국 2년물 금리가 밀리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를 고려하면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달러가 잘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달러/원 하단은 막힐 것 같다. 다만, 당국이 환율 상단을 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돼 환율은 위아래가 막힌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60원

▲ 임기묵 차장 (IBK기업은행)

"달러 강세 재료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유로는 최근 약세 전환하는 등 달러 인덱스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

이다. 그런 의미에서 월초 나오는 미국 고용지표 결과는 꽤 중요할 듯하다. 다만, 원화는 외인들의 원화 자산 매수로 인한 수급을 반영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 추세를 보여 이는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10-1,340원

▲ 류홍 대리(KDB산업은행)

"6월 초를 기한으로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에 투자심리 회복하고 있으나, 미국 물가 둔화 지연에 따른 연준의 6월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에 달러/원은 하단 제한되며 박스권 등락 이어질 듯하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 위안화 약세는 때때로 환율의 상방 변동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50원

▲ 오창섭 연구원(현대차증권)

"6월 FOMC에서는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6월을 기점으로 미국 금리인상 마무리 시사할 가능성 있다. 이에 따라 달러도 다시 약세 흐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달러/원이 1,300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5월을 정점으로 무역수지 적자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순매수 기조 등도 외환수급 측면 원화 약세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50원

▲ 김유미 연구원(키움증권)

"월초 1,300원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다 6월 FOMC가 금리 동결에도 매파적으로 평가되면서 달러 강세와 함께 달러/원 환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310-1,345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부채한도 협상 여부에 따라 금융시장에 높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어렵게 흘러가면 환율이 상방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도 높아지는 와중이어서 2분기 중에는 환율의 상방 위험 여전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도 문제인데, 연방정부의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며 은행위기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고 달러의 강세를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56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안도 속 우리나라 경상수급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6월 달러/원 환율의 경우 추가 상승 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의 플러스 전환,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레벨에서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한다. 다만 미국의 견조한 근원 물가와 이에 따른 매파적 연준에 대한 경계 등으로 연내 금리인하 전망 베팅이 되돌려질 경우, 달러 오버 슈팅과 달러/원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50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